

## 고창군, 운곡습지·고인돌 유적지 소재 용계마을 경관 디자인사업 7억 들여 본격 추진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진다.

군은 지난 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국비 3억7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전했다.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에게

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 경관 및 마을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박우정 군수는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청정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성규 기자

## **전북도민일보**

2016/03/03 목요일

007면 지역

### **고창 용계마을 경관조성 추진**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전망이다.

고창군은 2일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국비 3억7천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억4천만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더불어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은 물론 마을주민의 소득창출도 도모한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 **全羅日報**

2016년 03월 03일 목요일  
008면 지역

### **고창 용계마을 경관 조성 착수**

고창 아산면 용계마을이 쉼터와 돌담길 복원 등 고향의 정취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마을로 새롭게 재 단장한다. 이는 지난해 고창군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가능해졌다.

2일 군은 이 마을에 올해 국비 3억7000만 원을 포함해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sdi@



## 고창 용계마을 경관 아름다워진다

### 사업비 7억 4000만 투입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국비 3억 7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이번달 2일 전했다.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 경관 및 마을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박우정 군수는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청정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 고창군 용계마을 봄맞이 새단장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착수... 쉼터·돌담길 등 복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국비 3억7,000만원을 포함,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

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 경관 및 마을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청정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신익희기자

/syhee5311@hanmail.net

## ① 전주매일

2016년 03월 03일 목요일  
011면 지역

###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 경관디자인 사업 본격 추진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국비 3억 7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일 전했다.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 경관 및 마을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경관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 용계마을 경관디자인 ‘본격’

고창군, 7억 4000만원 투입

돌담길 복원 · 상징물 설치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답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국비 3억 7,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7억 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지난 2일 전했다.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

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 경관 및 마을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박우정 군수는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정정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정관진 기자

# “고향의 정취 느껴지는 곳으로”

고창 용계마을 경관디자인 조성 본격 추진

7억4000만원 들여 쉼터 · 돌담길 등 복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답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국비 3억7000만원을 포함해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일 전했다.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 경관 및 마을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박우정 군수는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정정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고창=임동갑기자

## **전주일보**

2016년 03월 03일 목요일  
013면 함께하는세상(지역)

### **고창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 착수 쉼터·편의공간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고창군 아산면 용계 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 마을에 올해 국비 3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7억4,000만원을 투입해 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창군은 용계마을 경관디자인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용계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한다. /고창=김태완 기자



## '생물권보전지역 핵심' 고창 용계마을 생태관광지로 조성

(고창=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인 아산면 용계마을을 생태관광지로 만든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용계마을은 인근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공원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관광 성공모델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고창군은 올해 7억4천만원을 들여 마을을 오가는 관광객을 위해 작은 공원을 만들고 돌담길을 복원한다.

마을 앞의 원평천에는 다양한 수생식물을 심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빨래터도 다시 만든다.

마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용계마을을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 경관디자인 추진

【고창=뉴스시스】김종호 기자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전북 고창군, 그중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국비 3억7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4000만 원을 투입, 본격적인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을 위한 쉼터와 편의공간,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안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도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 계획이다.

박우정 군수는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청정한 자연을 잘 지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전했다.

seun6685@newsis.com

## 고창군, 용계마을에 7억여원 들여 경관조성사업 추진" id="MetaOgTitle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박우정 전북고창군수(가운데)는 “생태관광 성공모델 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청정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 News1 박제철 기자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이자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습지가 있는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마을의 경관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전북도 경관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용계마을에 올해 7억4000만 원을 투입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관 전문가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주민을 위한 쉼터 및 편의공간과 돌담길 복원, 상징물 설치 등 친근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한다.

또 주민들이 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류(장독대) 및 가판대 등을 설치해 생태체험 경관 및 마을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이자 자연생태 우수마을인 용계마을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다양한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청정한 자연을 잘 지키면서 관광 경쟁력을 갖춘 지역 명소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박제철 기자(jcpark@)

## '생물권보전지역 핵심' 고창 용계마을 생태관광지로 조성

전북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인 아산면 용계마을을 생태관광지로 만든다.

용계마을은 인근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공원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생태관광 성공모델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고창군은 올해 7억4천만원을 들여 마을을 오가는 관광객을 위해 작은 공원을 만들고 돌담길을 복원한다.

마을 앞의 원평천에는 다양한 수생식물을 심고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빨래터도 다시 만든다.

마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공간도 마련한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용계마을을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